갈릴리 호수의 이적들

4월 5일, 토요일 | 마 27:1 - 28:7, 20절에서

다음주 4월 12일 금요일에 다음 주 토요일 (4월 18일) 사이에 이번 주 (4월 5일) 주간 토요일 (4월 11일) 사이에

안식일 오후, 3월 27일

가지 말라

"Heaven Jesus performed him not, but saith unto him, Go home to thy friends, and tell them how great things the Lord hath done for thee, and hath compassion on thee. Kjv – Mark 5:19

"예수께서는 그를 고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 집으로 가서 주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너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하시니 - 막 5:19

"Day was breaking over the Sea of Galilee. The disciples, weary with a night of fruitless toil, were still in their fishing boats on the lake. Jesus had come to spend a few hours with his disciples, in the early morning. He turned his footsteps from the place of rest from the multitude that followed him day after day. But soon the people began to gather. Some had been healed of their diseases, others had been relieved of their burdens, and multitudes the disciples had sent away. Some had come from the outskirts of the multitude, Jesus stepped into Peter's boat, and bade him put out a little from the shore, that the people could be better seen and heard. He sat down in the boat and taught the multitude on the beach. DA 247 1

"해가 갈릴리 호수에 밝아오고 있었다. 밤을 지새워 헛된 일에 지쳐 있던 제자들은 아직도 고기잡이 배에서 호수에 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몇 시간을 지내기 위해 이른 아침에 호수에 오셨다. 그는 날마다 뒤따르는 무리들로 부터 벗어나 쉬는 곳을 떠나셨다. 그러나 곧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짐을 덜었으며, 제자들이 돌려보낸 무리들도 많았다. 그 중에는 변두리에 있는 무리들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 조금 떠나서 해변에 있는 무리들을 잘 볼 수 있도록 하셨다. 그는 배에 앉으셔서 해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다. DA 247 1

"Jesus sent the demoniac away with the command, 'Return to your home, and show how great things God has done for you.' Luke 8:39. He was not to go among strangers, but among those who had known him in his degradation. He was not to go among those who had witnessed his miracles, but among those who had seen the effect of his work upon his own family. Jesus knew that the demoniac would be a witness for him among his kindred, and he was willing to trust the case with them. The man was to tell what great things God had done for him, and how he had compassion on him. He was to tell what great things Christ had done for him, and how he had compassion on him. He was to tell what great things God had done for him, and how he had compassion on him. He was to tell what great things Christ had done for him, and how he had compassion on him. DA 248 1

"예수께서는 귀신들린 사람에게 명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네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네게 행하신 일을 말하라' 하셨다. 눅 8:39. 그는 낯선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으셨고 그의 타락하였을 때 그를 알았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그는 그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으셨고 그의 사역이 그의 가족에 미친 영향을 보았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린 사람이 그의 친족들 가운데 증인이 되리라는 것을 아셨고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 원하셨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과 그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신 것을 말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과 그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신 것을 말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과 그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신 것을 말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과 그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신 것을 말하였다. DA 248 1

3월 28일 목요일

Calming a Storm

폭풍을 잠잠하게 하심

Read Mark 4:35-41. What happens in this story and what lessons can we take from it about who Jesus is?

마가복음 4:35-41을 읽어 보라.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The storm ceases. The billows sink to rest. The clouds roll away, and the stars shine forth amid the deep blue of the heavens. The winds and the waves obey, as servantsfully. "Why are ye fearful? have ye not yet faith?" Mark 4:40, KJV. DA 335 1

"폭풍이 멈추고 파도는 잠잠하였다. 구름이 걷히고 하늘의 깊은 청색 가운데 별들이 빛나고 있다. 바다와 바람은 종들처럼 순종하였다. "너희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막 4:40. DA 335 1

"It hush'd upon the disciples. Even Peter did not attempt to express the awe that filled his heart. The leaders had not dare to authoritatively question the Master who was yet with that of the disciples. Terror and despair had seized their occupants, but Christ was with them, and they had not dared to question Him. The Master of the sea had driven the beasts into close proximity, and all an desert beheld the miracle. In the midst of the storm, Christ had slept, and the disciples had thought that they must perish. Now they were in a calm, and they had not dared to question Him. Their Master was with them, and they had not dared to question Him. Christ was with them, and they had not dared to question Him. DA 335 1

"제자들에게 침묵하였다. 베드로조차도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경외를 표현하지 못하였다. 지도자들은 감히 주인 되신 분에게 권위있게 질문하지 못하였다. 공포와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으며 그들은 감히 그에게 질문하지 못하였다. 바다의 주인이신 그분께서는 짐승들을 가까이 몰아오셨으며 광야 전체가 그 기적을 보았다. 폭풍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잠들어 계셨고 제자들은 이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제 그들은 잔잔한 가운데 있었으며 그들은 감히 그에게 질문하지 못하였다. 그들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으며 그들은 감히 그에게 질문하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으며 그들은 감히 그에게 질문하지 못하였다. DA 335 1

"Christ was with them, and they had not dared to question Him. Christ was with them, and they had not dared to question Him. Christ was with them, and they had not dared to question Him. DA 335 1

Read Psalm 104:1-9. How does the picture of Yahweh here compare with Christ calming the storm?

시편 104:1-9을 읽어 보라. 이 구절에 나타나 여호와의 모습을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비교하는가?

3월 29일 금요일

Can you hear a whisper above a shout?

기쁨 가운데 울부짖음에 숨겨진 간구를 들으시는가

Read Mark 5:1-20. What can we learn about the great controversy from this account, and what does it teach us about God?

마가복음 5:1-20을 읽어 보라. 이 놀라운 기적사역의 이야기에서 위대한 논쟁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Christ sent the demons into the unclean swine to show the world what manner of spirits the darkened minds of the unfortunate were. They realized dimly that Christ was near, and they came to worship Him. But the presence of Christ was to them a terrible torment, because their hearts were not prepared to receive the pure, holy, heavenly influence spoke through them, crying, vehemently, "What have I to do with Thee, Jesus, Thou Son of God? I adjure Thee by God, that Thou torment me not." Mark 5:7. DA 2 1

그리스도께서는 귀신들린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불행한 영혼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을 더러운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셨다. 그들은 희미하게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아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임재는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거룩하고 천상의 영향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예수 너희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을 인하여 구하노니 나를 괴롭히지 말기를 바라노라" 막 5:7. DA 2 1

"Christ sent the demons into the swine, to show the world that they were the agents of Satan, and that the souls of men were their prey. Satan's purpose in thus dwelling in the swine was to show the world that the souls of men are his prey, and that he is the ruler of this world. Satan's purpose in thus dwelling in the swine was to show the world that the souls of men are his prey, and that he is the ruler of this world. Satan's purpose in thus dwelling in the swine was to show the world that the souls of men are his prey, and that he is the ruler of this world. DA 2 1

"그리스도께서는 귀신들을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이 사탄의 대리자들이며 사람들의 영혼들이 그들의 먹이임을 세상에 보이셨다. 돼지들 가운데 거하는 사탄의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그의 먹이임을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의 지배자임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었다. 돼지들 가운데 거하는 사탄의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그의 먹이임을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의 지배자임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었다. 돼지들 가운데 거하는 사탄의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그의 먹이임을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의 지배자임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었다. DA 2 1

"Christ sent the demons into the swine, to show the world that they were the agents of Satan, and that the souls of men were their prey. Satan's purpose in thus dwelling in the swine was to show the world that the souls of men are his prey, and that he is the ruler of this world. Satan's purpose in thus dwelling in the swine was to show the world that the souls of men are his prey, and that he is the ruler of this world. Satan's purpose in thus dwelling in the swine was to show the world that the souls of men are his prey, and that he is the ruler of this world. DA 2 1

"그리스도께서는 귀신들을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이 사탄의 대리자들이며 사람들의 영혼들이 그들의 먹이임을 세상에 보이셨다. 돼지들 가운데 거하는 사탄의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그의 먹이임을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의 지배자임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었다. 돼지들 가운데 거하는 사탄의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그의 먹이임을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의 지배자임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었다. 돼지들 가운데 거하는 사탄의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그의 먹이임을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의 지배자임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었다. DA 2 1

3월 30일 토요일

On the Roller Coaster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롤러코스터

Read Mark 5:21-24. What characteristics partly stand out about Jairus?

마가복음 5:21-24을 읽어 보라. 야이로의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가?

"The father of the dear one lay in great distress, and cast himself at his feet, saying, 'My little daughter lieth at the point of death: I pray thee, that thou come and lay thy hands on her, that she may be healed.' Mark 5:23. DA 3 1

"사랑하는 딸의 아버지 그 고통을 참아 하시는 나이 많은 아버지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청하노니 와서 손을 얹으사 그 아이가 살아나게 하소서" 막 5:23. DA 3 1

"Jesus set out at once with the ruler for his home. Though the disciples had seen so many of his miracles, they could not understand why he should be so anxious to go to the house of a ruler, and they murmured among themselves, "Master, the people thronged thee, and press thee, and sayest thou, Who touched me?" Mark 5:31. DA 3 1

"예수께서 즉시 관원과 함께 자기 집으로 향하셨다. 제자들은 그가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 것을 보았으나 그가 왜 관원의 집에 가는 것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선생님 무리가 에워싸고 밀되 누가 내게 손대었느냐 하시는 것이 어찌하여 이러한 말씀이시냐" 하였다. 막 5:31. DA 3 1

"Jesus stopped to inquire, "Who touched my clothes?" Mark 5:30. DA 3 1

"예수께서는 멈추시고 물으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대었느냐" 하셨다. 막 5:30. DA 3 1

"Jesus pressed down to the Sanhedrin, and together they hurried to the ruler's home. Jairus had anticipated the coming of the Saviour, and had prepared the way for his coming. The presence of the crowd, and the tumult, had prevented Jairus from meeting the Saviour at the door. Jairus had hoped that he might be the first to receive the Saviour, but despaired." They were indignant at the words of the Stranger. They had hoped that Jesus would be their friend, and they had expected that he would bring them all to leave the busy road with him to the father and mother, the rulers and the middle, and the three disciples, Peter, James, and John, together they entered the house of Jairus. DA 3 1

"예수께서는 산헤드린 가까이 다가가셨으며 그들은 함께 서둘러 관원의 집으로 향하였다. 야이로는 구주의 오심을 기대하였으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무리들의 소동과 혼잡은 야이로가 문에서 구주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야이로는 그가 먼저 구주를 영접하기 원하였으나 절망하였다." 그들은 이 낯선 사람의 말에 분노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라셨으며 그들은 그가 그들 모두를 바쁜 길에서 벗어나 아버지와 어머니, 관원들과 중간에 있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DA 3 1

"Jesus approached the bereaved, and, taking the child's hand in his own, he pronounced, softly, in the familiar language of the home, the words, 'Damsel, I say unto thee, arise.' DA 3 1

"예수께서는 슬픔 중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붙드시고, 그 집의 친숙한 말로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셨다. DA 3 1

3월 31일 일요일

Rejection and Reception

배척과 영접

Read Mark 6:1-6. Why did Jesus's hometown people reject him?

마가복음 6:1-6을 읽어 보라. 예수님은 그를 배척하였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왜 배척하였는가?

"Christ's life of humiliation should be a lesson to all who desire to exalt themselves. Christ was the Prince of heaven, the Ruler of the universe. He was the Creator of all things, the Upholder of all things, the Heir of all things. DA 4 1

"그리스도의 삶에서 보여 주신 겸손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천국의 왕자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을 붙드시는 자이시며 만물의 상속자이시다. DA 4 1

"In humility Christ began his mighty work of lifting the fallen race from the degradation into which it had fallen. He was willing to take upon Himself our nature, thereby ennobling the human race, and giving to every man who should become a member of the redeemed family, the privilege of becoming a child of God. Christ was willing to be regarded as a man among men, that He might lift them from their degradation, and place them in a position to behold the glory of God. Christ was willing to be regarded as a man among men, that He might lift them from their degradation, and place them in a position to behold the glory of God. Christ was willing to be regarded as a man among men, that He might lift them from their degradation, and place them in a position to behold the glory of God. DA 4 1

"겸손하게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하였던 인류를 그 타락에서 들어올리는 그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는 우리의 본성을 스스로 취하시기 원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가족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 여김을 받기 원하셨으며 그들을 그 타락에서 들어올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위치에 두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 여김을 받기 원하셨으며 그들을 그 타락에서 들어올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위치에 두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 여김을 받기 원하셨으며 그들을 그 타락에서 들어올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위치에 두셨다. DA 4 1

"The Jews had personally beseiled Christ were to come as a king, to conquer His enemies and crown them the heirs of heaven. Christ was willing to be regarded as our Saviour lest, which should have wandered in the hearts of the people and have caused them to stumble, offended and perished. Christ was willing to be regarded as all know of the treatment he received from them.." DA 4 1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포위하였던 유대인들은 그가 왕으로 오셔서 그의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상속자들의 관을 씌우시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로 여김을 받기 원하셨으며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방황하여 그들로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성내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을 염려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로 여김을 받기 원하셨으며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방황하여 그들로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성내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을 염려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로 여김을 받기 원하셨으며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방황하여 그들로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성내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을 염려하셨다. DA 4 1

3월 32일 수요일

Rejection and Reception

배척과 영접

Read Mark 6:1-6. Why did Jesus's hometown people reject him?

마가복음 6:1-6을 읽어 보라. 예수님은 그를 배척하였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왜 배척하였는가?

"Christ's life of humiliation should be a lesson to all who desire to exalt themselves. Christ was the Prince of heaven, the Ruler of the universe. He was the Creator of all things, the Upholder of all things, the Heir of all things. DA 4 1

"그리스도의 삶에서 보여 주신 겸손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천국의 왕자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을 붙드시는 자이시며 만물의 상속자이시다. DA 4 1

"In humility Christ began His mighty work of lifting the fallen race from the degradation into which it had fallen. He was willing to take upon Himself our nature, thereby ennobling the human race, and giving to every man who should become a member of the redeemed family, the privilege of becoming a child of God. Christ was willing to be regarded as a man among men, that He might lift them from their degradation, and place them in a position to behold the glory of God. Christ was willing to be regarded as a man among men, that He might lift them from their degradation, and place them in a position to behold the glory of God. Christ was willing to be regarded as a man among men, that He might lift them from their degradation, and place them in a position to behold the glory of God. DA 4 1

"겸손하게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하였던 인류를 그 타락에서 들어올리는 그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는 우리의 본성을 스스로 취하시기 원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가족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 여김을 받기 원하셨으며 그들을 그 타락에서 들어올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위치에 두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 여김을 받기 원하셨으며 그들을 그 타락에서 들어올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위치에 두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 여김을 받기 원하셨으며 그들을 그 타락에서 들어올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위치에 두셨다. DA 4 1

"Christ was willing to be regarded as a man among men, that He might lift them from their degradation, and place them in a position to behold the glory of God. Christ was willing to be regarded as a man among men, that He might lift them from their degradation, and place them in a position to behold the glory of God. Christ was willing to be regarded as a man among men, that He ought lift them from their degradation, and place them in a position to behold the glory of God. DA 4 1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 여김을 받기 원하셨으며 그들을 그 타락에서 들어올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위치에 두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 여김을 받기 원하셨으며 그들을 그 타락에서 들어올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위치에 두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 여김을 받기 원하셨으며 그들을 그 타락에서 들어올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위치에 두셨다. DA 4 1

3월 33일 목요일

Rejection and Reception

배척과 영접

Read Mark 6:1-6. Why did Jesus's hometown people reject him?

마가복음 6:1-6을 읽어 보라. 예수님은 그를 배척하였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왜 배척하였는가?

"Christ's life of humiliation should be a lesson to all who desire to exalt themselves. Christ was the Prince of heaven, the Ruler of the universe. He was the Creator of all things, the Upholder of all things, the Heir of all things. DA 4 1

"그리스도의 삶에서 보여 주신 겸손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천국의 왕자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을 붙드시는 자이시며 만물의 상속자이시다. DA 4 1

"In humility Christ began His mighty work of lifting the fallen race from the degradation into which it had fallen. He was willing to take upon Himself our nature, thereby ennobling the human race, and giving to every man who should become a member of the redeemed family, the privilege of becoming a child of God. Christ was willing to be regarded as a man among men, that He might lift them from their degradation, and place them in a position to behold the glory of God. Christ was willing to be regarded as a man among men, that He might lift them from their degradation, and place them in a position to behold the glory of God. Christ was willing to be regarded as a man among men, that He ought lift them from their degradation, and place them in a position to behold the glory of God. DA 4 1

"겸손하게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하였던 인류를 그 타락에서 들어올리는 그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는 우리의 본성을 스스로 취하시기 원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가족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 여김을 받기 원하셨으며 그들을 그 타락에서 들어올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위치에 두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 여김을 받기 원하셨으며 그들을 그 타락에서 들어올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위치에 두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 여김을 받기 원하셨으며 그들을 그 타락에서 들어올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위치에 두셨다. DA 4 1

"Christ was willing to be regarded as a man among men, that He might lift them from their degradation, and place them in a position to behold the glory of God. Christ was willing to be regarded as a man among men, that He ought lift them from their degradation, and place them in a position to behold the glory of God. Christ was willing to be regarded as a man among men, that He ought lift them from their degradation, and place them in a position to behold the glory of God. DA 4 1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 여김을 받기 원하셨으며 그들을 그 타락에서 들어올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위치에 두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 여김을 받기 원하셨으며 그들을 그 타락에서 들어올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위치에 두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 여김을 받기 원하셨으며 그들을 그 타락에서 들어올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위치에 두셨다. DA 4 1

the beheading of John the Baptist?

마가복음 6:7-30을 읽어 보라. 열두 사도의 사명은 침례 요한의 참수와 어떻게 대 조되는가?

When Jesus went forth the twelve, he "commanded them, saying, Go not into the way of the Gentiles, and into any city of the Samaritans enter ye not: but go rather to the lost sheep of the house of Israel." RH January 6, 1903, par. 12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어느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RH 1903년 1월 6일, par. 12

"Christ instructed the disciples plainly not to go "into the way of the Gentiles" until they had first borne their testimony to the Jews. If the Jews refused to hear them, they were to go into new territory. The work before them was an important one. The time had come for the fulfilment of truth to be carried to the Jewish nation and to the whole world. But if those sent forth had at first worked among the Samaritans and the Gentiles, the doors of entrance to the Jews would have been closed. Afterward, the disciples were commissioned to go into all the world, and teach all nations." RH January 6, 1903, par. 13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를 했기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새로운 영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진리의 빛이 유대 민족과 온 세상에 전해질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파송받은 이들이 처음에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했더라면, 유대인에게로 들어가는 문은 닫혀 질 것입니다. 그 후 제자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RH 1903년 1월 6일, par. 13

Christ himself, in all his ministry, gave the Jewish nation the first opportunity to receive him as the Saviour. Upon the Jews was bestowed the honor of first hearing from the lips of Christ his message of salvation. The Lord Jesus gave a special and very wonderful gospel to the Jews. He regarded them as lost sheep, which he, as their Shepherd, came to seek and to save, gathering them out from the bypaths and the highways of sin and error, and bringing them back to his fold. RH January 6, 1903, par. 14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 유대 민족에게 그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입술로부터 구원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듣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고 매우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셨고, 목자로서 그들을 찾아 구원하여 오시셔 죄와 오류의 곁길과 큰길에서 그들을 모아 자기 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RH 1903년 1월 6일, par. 14

The work that the apostles were to do was clearly defined: "As ye go, preach, saying,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Heal the sick, cleanse the lepers, raise the dead, cast out devils; freely ye have received, freely give. Provide neither gold, nor silver, nor brass in your purses, nor scrip for your journey, neither two coats, neither shoes, nor yet staves: for the workman is worthy of his meat. And into whatsoever city or town ye shall enter, inquire who in it is worthy; and there abide till ye go thence. And when ye come into an house, salute it. And if the house be worthy, let your peace come upon it: but if it be not worthy, let your peace return to you. And whosoever shall not receive you, nor hear your words, when ye depart out of that house or city, shake off the dust of your feet. Verily I say unto you, It shall be more tolerable for the land of Sodom and Gomorrha in the day of judgment, than for that city." RH January 6, 1903, par. 15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면서 전하되 이르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지갑에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여행용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 이는 일꾼이 그 먹을 것에 합당하게 됨이니라. 너희가 어느 성읍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 누가 합당한지 물어보고 거기서 거기까지 머물라. 그리고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경례하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의 평강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평강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희가 그 집이나 성읍에서 나갈 때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며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더 견딜 만하리라." RH 1903년 1월 6일, par. 15

8월 1일 목요일

A Different Kind of Messiah
대중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

Read Mark 6:34-52. What was the problem Jesus and His disciples confronted and how was it solved?

마가복음 6:34-52을 읽어 보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And when the day was now far spent, his disciples came unto him, and said. This is a desert place, and now the time is far passed; send them away, that they may go into the country round about, and into the villages, and buy themselves bread; for they have nothing to eat. He answered and said unto them, Give ye them to eat.' Surprised and astonished, they say unto him, "Shall we go and buy two hundred pennyworth of bread, and give them to eat? He saith unto them, How many loaves have ye? go and see. And when they knew, say, Five, and two fishes. And he commanded them to make all sit down by companies upon the green grass. And they sat down in ranks, by hundreds, and by fifties. And when he had taken the five loaves and the two fishes, he looked up to heaven, and blessed, and brake the loaves, and gave them to his disciples to set before them; and the two fishes divided he among them all. And they did all eat, and were filled. And they took up twelve baskets full of the fragments, and of the fishes." ST August 12, 1897, par. 4

"날이 지물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여기는 광야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저들을 보내어 사방으로 가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 스스로 양식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먹으라 하시니라. 그들이 놀라고 놀라며 이르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거라. 그 들이 알고 나서 말하되,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여 푸른 풀밭에 무리를 지어 앉으라 하셨다. 그들은 수백 명씩, 오십 명씩 대열을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물고기 두 마리를 제자들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제자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조각과 물고기로 가득 한 바구니 열두 개를 가져갔습니다." 1897년 8월 12일, par. 4

"So great was the people the way to secure peace and happiness was just as thoughtful of their temporal necessities as of their spiritual need. The miracle of the loaves shows us that God's dealings with his people are full of goodness and truth. The people were weary and faint. Many had been standing for hours. They had been so intensely interested in Christ's words that they had never once thought of sitting down, and the crowd was so great that there was danger of their trampling upon each other; jesus would give them a chance to rest, and he made them sit down. They could sit down and rest in comfort; for there was much grass in the place. Christ arranged to give them all the rest they needed. O, how few understand the sympathy and love of Jesus!" ST August 12, 1897, par. 5

"백성에게 평화와 행복을 보장하는 길을 가르치신 분은 영적인 필요만큼이나 현세적인 필요도 세심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빵의 기적은 하느님께서 백성을 대하시는 방식이 선과 진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지치고 기진맥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앉을 생각을 하지 못했고, 군중이 너무 많아서 서로를 짓밟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쉴 기회를 주시고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앉아서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휴식을 주셨습니다. 오, 예수님의 동정심과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1897년 8월 12일, par. 5

8월 2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There were places where Christ could not work. [See] Mark 6:1-6. Christ sent forth His disciples two and two, and commanded that they should take nothing for their journey. And they went out and preached that men should repent, and they cast out devils, and anointed with oil many that were sick and healed them. But they must depend on those whose homes they visited to give them food and a comfortable chance to rest. 15LtMs, Lt 45, 1900, par. 47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참조] 마가복음 6:1-6.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여행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방문한 사람들의 집에 음식과 편안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15LtM, Lt 45, 1900, par. 47

"This building up of institutions to feed the people was not God's devised plan. When churches were raised up through the preaching of the gospel, the members were not to have this personal work done by proxy, and not come close to the sick, visiting them and showing their love and care for the Lord's property by ministering to them, and not lavish upon them the Lord's bounties. 15LtMs, Lt 45, 1900, par. 48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기관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가 세워질 때, 회원들은 이 개인적인 일을 대리로 수행해서는 안 되며, 병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돌보아 주는일의 재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서는 안 되며, 주님의 금고에서 나온 수단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15LtM, 45, 1900, lt. 48

"The church should have certain wise men and women chosen to look after the poor and then report and counsel as to what should be done. They should not be encouraged to think they can have their eating, drinking, and sleeping in a place provided for them all free, as though there was an inexhaustible fund to provide for them. Men of God should be appointed, men of discernment and wisdom and care, to look after the wants of the saints of God, the household of faith, first. The Lord commands that His commandment-keeping people shall have relief first, and then every case is to be examined, and not teach them that a work is to be done for them free or nearly so. 15LtMs, Lt 45, 1900, par. 49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도록 지혜로운 남녀 몇 명을 뽑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하고 조언해야 합니다. 마치 무한한 기금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격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분별력과 지혜와 돌봄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여 믿음의 가정인 하나님의 성도들의 필요를 먼저 돌보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에게 먼저 구제를 베풀고 모든 경우를 살펴야 하며, 그들에게 공짜로 또는 거의 공짜로 일을 해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15LtM, Lt 45, 1900, par. 49

"Many will depend as long as they have anything to depend on, and God knows better than short-sighted mortals what is best for the creatures He has created. He would not have transgressors and the worst kind of humanity consuming the revenue He has appointed to sustain those who shall be refused work because they keep the law of God. The widows and orphans of those who are the saints of the Most High are not to be passed by, nor should their pittance be taken as contributions to support those who could, if they conducted themselves properly, support themselves." 15LtMs, Lt 45, 1900, par. 50

"많은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있는 한 의지할 것이며, 하나님은 근시안적인 인간보다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범죄자들과 최악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는 이유로 임을 거부당할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 그분이 정하신 수입을 소비하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인 과부와 고아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제대로 행한다면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한 헌금으로 그들의 적은 재산을 가져가서도 안 됩니다." 15LtM, 45, 1900, par. 50

추가 연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묻으하세요:
Whatsapp: (+63)961-954-0737
contact@advancedsabbathschool.org